

‘하는 말’과 ‘듣는 말’

문화향기

심명자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이사장



요즘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를, 전화보다는 문자로 의사표현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다. 언어와 비언어인 제스처나 몸짓까지 포함한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는 대면 대화와는 달리 문자 카톡에 의한 소통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그렇다고 대면 대화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의사전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대를 불신하는 일이 문자나 카톡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림책 ‘빌려준다고 했는데’ (글:가사 이 마리, 그림:기타무라 유카, 책읽는곰 출판사, 2023)는 의도치 않게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잘 구현하고 있다. 주인공 렌이 새로 산 공룡도감을 읽다가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 다이치에게 빌려주러 간다. 만나서 책을 건네 줄 때 공사장 소리 때문에 렌이 말한 ‘공룡도감 빌려줄게’가 ‘공룡도감 줄게’로 다이치에게 들린다. 그림책의 특성대로 이때부터 렌과 다이치의 감정들이 생략돼 있지만, 독자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책을 빌려준 렌은 다이치가 그 책을 보며 좋아할 것을 상상하면서 흐뭇했을 것이고, 다이치는 그 책을 준 렌에게 고마워하며 자기 책이 된 공룡도감을 마음껏 즐길 것이다. 심지어 밑줄도 치고 그림도 그리면서, 갈등은 그 후부터이다. 돌려줄 것을 기다리던 렌이 다이치를 다그친다. 다이치도 썼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하니 렌에게 화를 낸다. 다른 친구의 조언으로 ‘하는 말’과 ‘듣는 말’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해의 실마리가 풀린

다. 이렇듯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갈등을 어떻게 푸는 것인가가 가장 큰 관점이다. 기본적으로 렌과 다이치는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다. 공룡도감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불안하고 슬픈 것이다. 결국 벤치에 던져버린 공룡도감이 비를 맞아 젖어버릴까 봐 둘 다 공원으로 가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우산을 나눠 쓰고 마주 보며 웃는다. 아무리 오해를 하고 배신감을 느낀다해도, 신뢰감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갈등은 금세 풀린다. 오히려 갈등 이전보다 더 굳건한 우정이 생길 것이다.

‘괜찮아, 나의 두꺼비야’ (지은이 이소영, 글로연출판사, 2022) 역시 깊은 우정을 나누던 두 친구의 갈등, 갈등 속에 깊이 숨겨진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내성적이고 조용히 지내길 좋아하는 빨강이, 외향적이고 수다스러우며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하양이가 함께 지내다가 문제가 일어난다. 빨강이는 오로지 하양이와 밀착되고, 하양이만 바라보고 있지만 하양이는 늘 다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친구를 초대하기도 한다. 결국 갈등이 생기고 화를 참지 못한 빨강이가 하양이에게 돌을 던진 바람에 하양이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빨강이는 극도의 상실감과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다. 의도치 않게 상해를 입었을 때의 걱정스런 마음과는 다르게 분노가 더욱 고조되기 때문이다. 한참 지나 하양이가 초대된 친구가 찾아와 그동안 하양이가 빨강이를 아끼고 사랑한 내용의 편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려준다. 비로소 빨강이는 하양이에 대한 미안함과 소중함이 겹치고 서로 화해하게 된다. 이 작품 역시 아무리 분노해도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간직한 속마음을 잃지 않는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상대와의 갈등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

져 분노가 표출되지만, 상대에게 향하는 심연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사람의 관계는 ‘만남-호기심과 관계 형성-신뢰-갈등-갈등 해소 또는 단절’로 이어진다. 갈등은 관계가 유지되는 상대와 일어나는 것이 기본이다. 아무 관계가 없는 상대와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 이것은 서로 가까워질수록 상대에 대한 예의와 매너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상대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거나 자기 입장과 기분만 내세울 때 서로의 관계는 금이 가기 마련이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갈등을 잘 해소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달렸다. 이미 갈등이 일어난 경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깊은 마음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관계를 맺어갈 때보다 몇 배의 노력과 인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거듭된 불신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서 단절을 선택하기도 한다. 결국 서로를 원망하며 분리된다는 말이다.

‘해피어’의 저자 탈 벤 사하르 역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과 사회는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마다 삶의 습성이 있고,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경청만 하는 사람도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룬다. 모두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첨예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With me’를 ‘With you’로 전환하는 사고에 익숙해지면 합리적인 갈등 해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성숙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을 새겨 보자.

社說

공기청정기 교체 지연, 학생 건강 위협

전남 전교조, 대책 마련 촉구

봄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의 행정 미숙으로 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공기청정기가 가동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교직원 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1일 “지난해 11월 인천 부평에서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제조 제품을 학교에 납품한 제조업자가 조사를 받았고 전남지역은 임차한 2만 306대 중 1만 2656대가 사용 중지됐다”며 “도교육청은 발빠르게 회수·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1차 행정처분 처리기한인 지난 1월 2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2개월 연장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해 8월 일선학교 공기청정기 설치사업 계약기간이 종료돼 같은해 9월 1일부터 공기청정기 교체사업이 진행됐지만 사업추진이 늦어져 2학기 시작 이후에도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혀 도교육청의 ‘늦장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질타했다. 이들 교원 단체의 주장대로 행정 처리 미

숙으로 인해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전남지역 대부분 학교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올해 초 미세먼지가 ‘나뽀’ 수준인 날이 작년보다 잦아진 상황이어서 교육당국을 향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선이 급지 않을 듯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의 각 지역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횟수는 153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 19 이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이 잦아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일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의 무가 해제됐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한 반도를 뒤덮고 있어 마스크를 계속 쓰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 교체작업을 서둘러 가동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초미세먼지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만큼 주의보 등이 발효될 경우 교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집값 상승 노린 허위 거래, 엄중 대응해야

광주·전남 의심 사례 49건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로 허위 거래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가 만연한 모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신고가 해제된 거래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1086건에 이른다.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각각 129건과 39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와 전남도 허위거래로 의심받는 사례가 각각 19건과 30건으로 조사됐다. 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최고가로 계약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 자체를 취소시킨 행위를 정상으로 보긴 어렵다.

허위 거래는 집값 거품과 시세 교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잠먹는 악질적인 범죄이기도 하다. 집주인이 원하는 호가와 달리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시세 판단의 기준이다. 최고가로 계약된 허위 거래를 믿고 실수요자가 그 가격으로 집을 매수하면 가짜 가격이 진짜 ‘시세’로 굳어진다. 허위 가격을 믿고 거래를 한 후 집값이 정상화되면 선량한 거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규정 위반 등의 우려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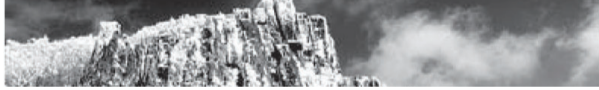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뒤 이를 취소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회도 최고 3000만 원으로 한정된 과태료를 실정법 위반인 ‘사기’로 처벌하는 등 벌칙을 강화시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집값으로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응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에메랄드 빛 바다가 눈앞에서 출렁인다. 물 속에서 굴절되는 빛과 오묘한 색감의 산호초, 미지의 생명체가 보여주는 화려한 몸짓도 신비하다. 지난 해 12월 개봉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2: 물의 길’은 압도적인 영상미와 달리 탐욕 때문에 무자비하게 바다를 파괴하는 인류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다. 네이티리에게 사랑을 느끼고 판도라 행성에 남은 설리. 지난 전쟁에서 패한 후 다시 돌아온 인류와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앞둔 그는 물의 부족 ‘멧케이나’와 인간의 야만적인 행동

인류의 집단지성

에 맞선다. 영화가 전편과 다른 점은 주 무대가 바다라는 것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수중 세계의 경이로운 모습과 독특한 해양 생물은 캐머런의 작품답게 상상을 초월했다. 영화의 키워드도 ‘연결’이다. 생물과 무생물은 모두 바다를 통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물의 길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영화 속 산호초 부족의 이야기는 그래서 울림이 크다. 잔인하게 살해된 고래 툰쿤을 수장하면서 그들은 “이들은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얻었다고 생각한다. 또 언젠가는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탐욕 때문에 바다를 착취해 온 인간을 부끄럽게 만드는 열린 생각이다.

판도라 행성과 마찬가지로 바다는 지구에서도 생명의 원천이다. 지구의 생명이 이곳에서 탄생했고 마지막 지구의 운명도 바다가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다는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 함께 살아갈 존재가 아니었다. 바다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다. 왜 바다가 생겨났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류가 순환하고, 생태계의 불균형이 가져올 미래가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과학자들도

화성보다 바다를 더 모른다고 말한다. 최근 유엔이 전세계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에 합의했다.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만의 성과다. 조약에 따라 2030년까지 공해(公海)를 포함한 전세계 바다의 30%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보호 구역에서는 어획 등 무분별한 착취가 금지된다. 현재 공해는 지구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지만 보호를 받는 곳은 1.2%에 불과하다. 판도라 행성에서 툰쿤은 죽는 순간에도 인간을 용서했다. 그들 또한 바다로 되돌아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착취로 점철됐던 바다, 그 바다가 못 생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내 디딘 ‘인류의 집단지성’이 반갑다.

이용환 논설위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